

## 박순녀 소설의 이방인의식과 탈주 — 월남여성지식인 작가의 소설 속 거주의 표상\* —

김 주 리\*\*

### 요 약

본고는 월남여성작가 박순녀의 소설적 특이성을 지속적으로 현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한 지향성을 간직한 이방인의식에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방인이란 잠재적 방랑자로서 고향과 타향 모두에서 체제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는 동시에 주변인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아이 러브 유>나 <외인촌 입구>, <어떤 파리> 등 박순녀 소설 속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난 (월남)여성주인공들은 파시즘과 가부장제 등 현실 체제와 불화하는 가운데 매춘부나 간첩이란 혐오발언의 낙인이 찍힌 존재로서 소외를 경험하는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자유와 사랑이 있는 다른 곳을 지향한다. 이들이 지향하는 장소는 <대한민국의 거지> 속 미국이나 <어떤 파리> 속 파리 같이 자유와 사랑이 구현된 유토피아로서 이러한 공간은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세교>에서 아름답게 추억하는,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과 같은 노스텔지어의 대상이다. 박순녀는 이처럼 고향을 이상적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없는 장소'로 환기하는 동시에 <귀향연습>이나 <잘못 온 청년>에서 보듯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공유하는 월남 동향인 집단의 만남이라는 '다른 장소'의 가능성으로 서사화한다. 이방인으로서 현실체제와 불화하는 월남 동향인의 만남이란 박순녀 소설에서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 '없는 장소'의 기억과 지향성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의 규율이나 윤리

\* 이 논문은 2016년 국립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를 넘어선 '다른 장소'의 일시적 총만함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제어: 박순녀, 월남여성지식인, 이방인, 혐오발언, 고향, 없는 장소, 다른 장소

목  
차

1. 서론
2. 체제와의 불화와 탈주의 이방인의식
3. '없는 장소'로서의 고향과 거주지 '다른 장소'
4. 결론

## 1. 서론

월남민이란 생의 근거를 이북에 둔 채 정치 사상적 갈등, 생계유지, 학업 등의 이유로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기 가족단위나 홀로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정착한 존재로서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한다. 사상적으로 월남민은 흔히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폭력성에 대한 증오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한 존재로 그려지지만 이러한 사상적 선명성이란 월남민들이 이후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과장하거나 연출한 측면이 없지 않다.<sup>1)</sup> 특히 학업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1) 김귀옥은 “과거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으로서 해방 이후 이남지역으로 오게 된 사람”을 월남민으로 정의하면서 월남 동기에 있어 정치사상적 동기 못지않게 생활난, 구직, 향학 등의 이유가 있었으나 남한 정착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결합하거나 단독 정치세력화하면서 반공주의라는 성격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한다.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민의 서울 정착-월남인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근』, 『典農史論』 9, 2003 참고

정치사상적 지향성보다 실향민 의식과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하여 실향민.”<sup>2)</sup>이라고 단언한 바 있는 월남 작가 박순녀는 여러 소설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서사화하고 있다. 단적으로 박순녀는 1998년에 펴낸 소설집 <기쁜 우리 젊은 날>의 머리글에서 자기 작품 세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고향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책이라도 묶으려고 내가 쓴 작품들을 정리하다 보면 꼭 한두 군데에서 내가 눈물을 닦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친구들이 나오는 대목이었다. 특히 북에 있는 친구들이 나오면 내가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50년을 넘게 가보지 못한 내 고향 친구 가족 등등이 나에게 제일 아픈 상처였다. 그렇건만 그들은 긴 세월을 두고 내 작품 속에서 한결같이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sup>3)</sup>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관통하는 소재이자 주제로서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과 가족, 친구 등에 대한 그리움을 ‘제일 아픈 상처’로 지적하는 것처럼, 박순녀의 소설은 해방기에 독신 여성으로 월남해 홀로 살아남아야했던 아픔과 잃어버렸으나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열여덟에 고향을 떠나 남한에서 50년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되돌아오는 유년과 학창시절 고향의 기억들이란 달리 보면, 남한에서의 50년을 실향-이산 월남민이란 이방인으로 살아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박순녀의 소설 속 여성 주인공을 통해 파시즘과 가부장제 등 현실 체제와의 불화 가운데 낙인찍

2) 박순녀, 「내가 섰던 최북단(最北端)」, 『사랑과 영혼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화사, 2016, 255면

3) 박순녀, 「책머리에-북의 친구들에게」, 『기쁜 우리 젊은 날-박순녀 소설집』, 지혜네, 1998, 4-5면

힌 이방인으로서의 소외와 자유, 탈주를 분석하는 한편 고향을 환기하는 장소들이 가진 의미를 재고함으로써 박순녀 소설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게오르그 짐멜은 이방인을 ‘잠재적 방랑자’<sup>4)</sup>로 간주하는데, 이런 점에서 고향과 타향 모두에서 이방인은 의심의 눈총을 받으며 어떤 집단의 핵심에 들어서지 못하고 변방만 어슬렁거리는 주변인이 된다. 하지만 주변인으로서 이방인의 소외된 위치는 자유라는 중요한 측면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sup>5)</sup> 즉 이방인은 고향과 타향이란 이중의 지향성(탈주욕망) 가운데 소외되는 동시에 어떤 집단의 현실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때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에게만 특별하게 인식되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서 고향은 실제 장소이기보다 유토피아의 속성을 갖는다.<sup>6)</sup> 본고는 박순녀의 여러 소설 속에서 자신이 거하는 사회에서의 이방인으로서 한계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월남)여성 주인공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꿈꾸는 고향의 ‘없는 장소’(유토피아)로서의 특징에 비겨 그들이 위치하는 ‘다른 장소’(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sup>7)</sup>

4) 짐멜, 『이방인』(여기서는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주)글항아리, 2014, 27면에서 재인용)

5) 김광기에 따르면 로버트 파크가 ‘두 세계에 모두 위치해 있지만, 두 곳 어디에서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경계인이 수동적인 개념이라면 이방인은 그것을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이질적인 맥락을 넘나드는 능동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위의 책, 27-33면 참고

6) 위의 책, 390-394면 참고

7) 박순녀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1960년대 문단 및 여성 작가들과 관련지어 그 특성을 지적하고(정영자, 『1960년대의 한국여성소설문학사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3; 이선미, 『16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 정혜경, 『〈사상계〉 등단 신인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연남경, 『1960년대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질서의 세계와 불화하는 서사들』, 『현대소설연구』 71, 2018) 박순녀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 2. 체제와의 불화와 탈주의 이방인 의식

에드워드 렐프에 따르면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거주한다는 것이며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sup>8)</sup> 집이나 고향은 이러한 의미 있는 자신만의 장소를 집약한 대상이다. 집과 고향을 벗어나는 행위란 친숙한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며 이에 장소감을 부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sup>9)</sup> 그러나 새로운 공간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고 그에 맞는 정체성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떠나온 고향과 집이라는 장소는 자아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떠나왔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차단된 이산(디아스포라)<sup>10)</sup>-실향민으로서 박순녀의 경우 고향과 타향이라는 두 장소에 대한 지향성은 이방인으로 자아를 위치시킨다. 1928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45년 월남한 박순녀에게 있어 출향은 학업을 위한 선택이며 삼팔선 경계 넘기의 과정은 졸업과 입학이라는 성장의 문턱으로 자리한다. 그녀는 수필 〈꼭 한번 서볼 것이다〉에서 “함흥여자는 도망을 잘 쳤다”<sup>11)</sup>

주체성이 가진 특질(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 2010; 정미지, 『박순녀 문학의 젠더 주체와 '불온'의 재현 논리』, 『여성문학연구』 38, 2016)이나 반공이데올로기(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월남 작가 박순녀의 경우』, 『아시아여성연구』 47권 1호, 2008) 등을 분석한 바 있다.

8)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5면

9) 이 푸 투안에 따르면 공간이 개방과 자유를 의미한다면 장소는 개별적 가치의 안식처로서 안전과 애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소에 고착되어 있으면서 공간을 열망한다. 이 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15면

10) 고전적 형태의 디아스포라는 강제 이동과 국외 추방, 불가능한 귀환에서 비롯되는 상실감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규정하는 특징은 이주를 떠났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거나, 돌아가기 어려운 '귀환의 봉쇄'이다. 비런더 칼라, 라인더 카무르, 존 허트닉, 정영주 역,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예코리브르, 2013, 25-26면

11) 박순녀, 『꼭 한번 서볼 것이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

는 발언과 함께 “지금 말로 가출인데, 그녀들은 배움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주 가출을 했”(282)으며 자신의 출향 역시 대학 진학을 위해서였음을 이야기한다. “어려서부터 어딘가로 가는 것을 꿈꾸어”<sup>12)</sup> 오던 그녀는 수없이 집과 고향을 도망쳐 삼팔선의 경계를 넘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성은 도망치기와 돌아가기가 중첩된,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떠나감의 (탈주)욕망을 내포한다. “어차피 나도 함흥여자여서, 몸서리치며 그곳에서 도망을 쳤다. 그러나 지금 나는, 좋은 작품 하나 써들고 성천강 독에 가서 꼭 한 번서 보고 싶다.”<sup>13)</sup> 그녀는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몸서리치며 도망쳐 어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동시에 자신이 떠난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모순된 욕망을 토로한다.

고향과 타향에서 모두 다른 공간을 꿈꾸며 ‘잠재적 방랑자’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은 박순녀의 소설 속 작가의 체험이 투영된 여주인공의 서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흔히 박순녀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아이 러브 유〉와 〈외인촌 입구〉, 〈대한민국의 거지〉와 〈어떤 파리〉는 거주 공간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체제에 순응 정착하지 못한 채 소외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데 특징이 있다.<sup>14)</sup> 이들 주인공은 모두 자신이 위치한 현실 체제와 불화하는 가운데 현실을 장악한 (남성/이남/제국)주체로부터 혐오발언을 통해 낙인찍힌 존재란 공통성을 나타낸다.<sup>15)</sup> 〈아이 러브 유〉에서 남

화사, 2016, 282면

12) 박순녀, 『여자가 좋으면 모두가 좋다』, 위의 책, 199면

13) 박순녀, 『꼭 한번 서볼 것이다』, 위의 책, 283면

14) 김윤선은 〈아이 러브 유〉와 〈외인촌 입구〉, 〈어떤 파리〉를 박순녀의 대표작으로 거론하면서 소설의 주인공들이 각각 10대, 20대, 30대 박순녀의 체험이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고 본다. 김윤선, 앞의 글, 239면

15) 혐오발언은 낙인을 찍는 공격으로(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 이혜진 역, 『증오하는 입-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오월의봄, 2013, 7면) 이는 어떤 이를 이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체로부터 추방하는 양식이다. 우에노 지즈코, 나일동

학생을 향해 ‘아이 러브 유’라는 농담을 나눈 여학생들은 일본인 교장으로부터 창녀, 매춘부라는 혐오발언을 듣게 되고, <대한민국의 거지>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해 첩이 되겠다는 여대생은 주변의 남자 대학생들에게 미친 여자로 치부되는가 하면, <외인촌 입구>에서 거주할 방을 얻으려 기지촌의 하우스걸이 된 여대생은 미군 대령에게 도둑 취급을 받고 <어떤 파리>에서 어릴 적 친구를 위해 증언하려는 여성은 간첩으로 매도될 위기에 처한다. 매춘부와 정신병자, 도둑과 간첩 등 주류 사회를 위협하는 더러운 대상으로 낙인찍힌 여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들 소설은 모두 체제와 불화하는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의 폭력 속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소외와 자유의 가능성, 탈주욕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아이 러브 유>는 일제 강점기 말 함흥의 공립여학교를 배경으로 파시즘의 억압과 조선인 여학생의 우울한 내면을 그리는 동시에 이방인 간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인간애에 도달하는 여성의 성장을 그리고 있다. 공립여학교 학생 명화의 눈에 비친 억압적인 사회 현실은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성 대상 폭력으로 집약된다. 조선인 여학생들은 매일같이 근로봉사에 시달리고 황국신민의 교육을 강요받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친근하게 구는 일본인 선생의 육발이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지나가는 남학생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 한다. 그들의 여학생다운 활기와 명랑, 장난은 그러나 규율을 강요하는 일본인 교장 네로, 친일파 훈육교사 민선생 등에 의해 황국처녀의 주체성을 위반한 퇴폐의 징후로 간주되어 매도된다.

『저 꼴로 길 가는 사내에게 추파를 던지니 발정 한 개와 다를 것이 뭐야.』

네로의 욕설은 첫마디부터가 모닥불을 끼얹는 듯한 이런 소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44-45면

리였다. 뒤이어 발광이니 열정(劣情), 색광, 창녀..... (중략)  
『그러기 내가 늘 뭐랬어. 길을 걸을 땐 삼 미터 앞에 시선을 두고 걸으라고, (중략) 도대체 너희들은 황국 처녀로서의 자각이 없어. 그 정신이 썩어 빠졌단 말야.』<sup>16)</sup>

그들은 지나가는 사범학교 남학생을 보며 ‘아이 러브 유’라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발정난 개니 색광, 발광, 창녀와 같은 혐오발언의 낙인이 찍히는데, 이는 그들에게 황국처녀로서의 자각이 없는 소외된 자로서의 위치를 각인시킨다. 황국처녀가 될 수 없고 되지 않으려 하는 그들에게 황국처녀 되기를 강요하는 일본인 교장-남성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혐오스러운 타자로 매도되는 한편 스스로 황국처녀의 주체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탈주하는 이방인 되기를 수행한다. 제국 남성의 규율 억압과 폭력이 지배하는 공립학교라는 공간은 타자인 피식민 여성에게 있어 이방의 공간, 자신이 주체로서 인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주변인으로서 소외를 경험하는 동시에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하는 가운데 그곳으로부터의 탈주 욕망, 다른 장소에 대한 지향성을 품는다.

나는 내가 아니,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한 소녀로 태어난 나의 환경이 운명적으로 너무나도 불순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다. 그것은, 처음 멘스가 있던 날의 <여자>에 대한 증오라 할까, 경악이라 할까, 아무튼 무엇엔가 몸부림쳐 억울하다고 항의하고만 싶던 그 심정과도 같다고 할까.(84)

소설에서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여자라는 사실은 동일하게 중요랄지 경악이랄지 몸부림쳐 억울하다고 항의하고 싶은 운명적인 불순함에 대한 느낌으로 동일시된다. 즉 그것은 자신이 거하는 공간

16) 박순녀, 『아이 러브 유』,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75면



에 대한 이질감, 소외와 비판적 자각을 모두 가져오는 경험이며, 자신이 있는 공간이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기에 그곳에서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탈주를 욕망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여기가 아닌 어딘가 다른 곳, 자신의 인간다움이 존재하는 다른 곳에 대한 지향을 간직하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일본인 교사 야마끼와 교류한다.

『전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째서 조선에 오셨어요?』

『명화 같은 외국 소녀를 보러 왔지.』 (중략)

『외국 소녀가 어디 있어요, 외국 소녀가.』

『그럼 명화도 황국신민이 되고 싶다는 말인가?』 (86-87)

고향과 모교에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명화와 봉숙은 자신들을 외국 소녀라고 부르는 일본인 교사에게서 동질감을 느낀다. 황국신민이란 정체성, 주체성을 거부하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인 동시에 각자의 이방(타향)에 거하는 존재로서 어딘가 다른 곳을 고향으로 그리워한다. 소설은 어딘가로 떠나는 이방인으로서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결말로 이어지는 바, 그들은 해방 직후 삼팔선 인근의 길에서 조우하며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같은 다섯 개 발가락을 가진 인간으로 동일시되는 것이다.

〈아이 러브 유〉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소외와 비판적 자각이 해방과 함께 새로운 주체적 공간으로의 지향이라는 여정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의 거지〉와 〈외인촌 입구〉는 그렇게 찾아온 남한에서 고학생-전제민으로 경험하는 또 다른 소외와 체제와의 불화를 서술하고 있다.

한 구역을 점령한 철조망, 한국인과의 격리를 시도한 꽤 넓

은 공지, 패스पोर्ट를 제시하고서야 들어서는 그곳 입구에는 맞지 않는 제복을 투박스럽게 입은 한국인 가드가 꾸부정한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었다.<sup>17)</sup>

〈외인촌 입구〉에서 월남 고학생 주인공이 당장 잘 곳을 찾아 하우스 걸로 취직하게 되면서 들어선 외인촌은 ‘한국인과의 격리’를 위해 철조망을 치고 패스पोर्ट를 제시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인데, 그 격리가 외부 타자(한국인)의 틈입을 막기 위한 내부 주체(미국인)의 권력행위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한국인 전체를 체제에서 소외된 존재로 만드는 모순된 공간이다. 즉 그곳은 한국인은 이방인(외국인)이 되고, 외국인인 미국인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고 점령하고 고용하고 파괴하는 공간으로, 그곳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인공은 미국 백인 남성 주체의 공간 속 이북 출신 여성 고용인의 소외를 느끼며 “온 천지에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은 울고 싶은 고독감”(142-143)에 잠긴다.

외인촌의 이방인으로 미국 백인 남성 주체의 현실체제 가운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한국인 하우스보이, 하우스 걸들은 그들을 둘러싼 인종차별 앞에서 분노하거나 자신만은 특별하다는 관념으로 미국 유학을 꿈꾸고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분열한다. 국문과 학생이며 복서인 김찬우가 미국 백인 남성의 차별에서 오는 소외감에 울분을 터뜨린다면 월남 고학생인 김순배는 철저하게 복종함으로써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몸을 던진다. 차별과 소외에 분노하는 대신 차별하는 존재로서 그는 주체로 재생하고자 한다.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 대학생의 주체화 욕망은 미국 유학이나 미국인과의 결혼이라는 선택을 지향하지만 사실 미국인 주체의 시선에서 이는 “분수도 모르는 가련한 알로”(156)의 욕망이기에 그 주

17) 박순녀, 『외인촌 입구』,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138면

체화의 욕망이란 좌절되고 조롱될 따름이다.

『내가 1.4 후퇴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내게는 어떤 탈출구가 보였어, 내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보였어. 그러나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거야. 커넬을 보고 있으면 나는 가끔 팔뚝에 시계 열 세 개를 차고 뺨내던 로스씨가 그리워지지.』

『이복엘 가요!』

나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눈물을 짹 흘렸다. 사면 팔방을 두들겨 보아도 탈출구가 없다고는 나는 한사코 생각지 않을 테다. 김 순배나 내가 절망해서 무기력해지는 날, 우리들 주위를 보라.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일이다. 채이고 두들겨맞고도 아픈 줄 모르는 일, 미국에나 본적을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천박한 짓을 아, 아, 키나 커가지고 잘난 줄 아는 저 백인 녀석들을 한국의 대학생들이 부러워할 줄 알면 어렵도 없다.(158-159)

‘팔뚝에 시계 열 세 개를 차고 뺨내던 로스씨가 그림자’는 월남 고학생 김순배의 인식이란 현재 그에게 약탈당할 그 어떤 것, 자기에 속한 그 어떤 장소도 없다는 처절한 자각과 결부된다. 이복에서 그는 적어도 로스씨에게 약탈될 수 있는 장소와 약탈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진, 정주지를 가진 인간이었다면 남한의 이 외인촌에서 미국인 커넬가의 하우스보이 노릇을 하는 현재 그에게는 약탈될 장소도 약탈될 무엇가도 아무것도 없다. 커넬에게 있어 그는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조차 아닌 ‘알로’일 따름이다. 약탈 받는 존재이기에 인간다울 수 있었던 이복에서의 자신에 비겨 외인촌에서의 자신은 미국 백인 남성에게 인간 이하의 존재이기에 약탈하거나 정복할 그 무엇도 남지 않는다. 이처럼 약탈당할 수 있는 존재로서, 알로가 아닌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월남 고학생 김순배와 달리 같은 월남 고학생이지만 여학생인 ‘나’는 차라리

고향-이복엘 가야 한다고 외친다. 월남 여대생에게 미국인 되기의 선택은 양공주와 매춘부라는 또 다른 낙인이 찍히는 행위이기에, 주인공은 인종차별에 저항해 “난 그년들이 말야, 차라리 한국 여자라면 정말 통쾌하겠어. 티기를 막 날 수 있게 말야. 그래서 백색두 황색두 다 없어지고 인종 차별이구 뭐구 다 없어지구, 그 공이 한국 여성들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어.”(152)라는 김찬우의 욕망에도, 미국인이 되고자 하는 김순배의 욕망에도 공명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미국인 되기란 매춘부, 양공주의 낙인 없이는 불가능한 욕망이기에 그녀는 미국이 아니라 고향-이복을 그리워한다. 그런데 미국인 되기라는 김순배의 욕망이 애초부터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점에서 소외된 알로의 위치를 받아들이는 무기력한 행위인 반면, 월남 여대생의 귀향의식이란 어떤 경우에도 무기력해지지 않겠다는, 주체의 조롱과 폭력 앞에 무감각해지거나 무력해지는 일 없이 항시 분노하는 이방인으로 존재하겠다는 외침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비판과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소외된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모두 어딘가로 떠나고자 하지만 백인-주체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김순배와 달리 ‘알로’의 낙인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월남 여대생은 ‘잘난 줄 아는 저 백인 녀석들’ 비판하는 목소리를 통해 미국이 아닌 고향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월남 여대생 주인공의 귀향에의 욕망은 〈대한민국의 거지〉에서는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서 미국에의 지향과 동일시된다.

그리고 그녀가 내 방의 벽에다 압핀으로 꽃아준 것은 종이로 만든 조그만 성조기였다. 펜으로 스타아 하나를 더 그려 넣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야.」 그녀는 펜으로 그려 넣은 스타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에게 꼭 묶여 있어야 할 나라가 뭐

따로 있으니. 우린 살고 싶은 곳에 살면 되는 거야.(중략) 어느 날 밤 우리는 꿈을 꾸지 않니. 꿈에서 깨어나 문득 북쪽을 돌아다볼 때, 나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기를 느끼는구나.....」<sup>18)</sup>

“길이 완전히 막혀 가는 이북 학생으로서의 불안”(185)을 안고 살아가는 월남 여대생 현세와 진하는 생계와 주거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도 미국을 꿈꾸고 미국인과의 자유로운 교류와 사랑을 생각하며 미군 숙소인 로즈홀을 서성이곤 한다. 자유와 사랑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애인에게 더러운 빨래 따위를 안겨 보내는 비루한 한국남성과 결혼하기보다 “돈 있는 사람의 첩이 되겠다는”(187) 지론을 가진 현세는 자신에게 고향이란 이북이 아닌 미국이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이 고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다움을 내포한 장소로서 고향은 그녀에게 국적이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실제하는 장소이기보다 이방의 미국인들이 추억하는 고향으로서의 미국, 즉 “호수에는 백조가 한가로이 날고 푸른 수목이 그늘을 지어주는 빨간 지붕의 흰 창틀가”(190)를 가진 이상적인 장소로서의 미국이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동족간 이성애와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는 한국 남성가부장제 사회 체제에서 일탈하는 것이기에 그녀는 주변 남학생들에게 매춘부나 미친 여자로 낙인찍힌다.<sup>19)</sup> 현실에 존재하는 (이북의) 고향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서의 고향이란 자기 정체성의 지향점이자 환상으로 구축된 유토피아이며, 주인공 현세는 전후의 현실에서 매춘부 혹은 미친 여자로 낙인찍힌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고향-미국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18) 박순녀, 『대한민국의 거지』, 『칠법전서』, 일지사, 1976, 196면

19) 이선미는 <대한민국의 거지> 속 미국이 구체적 실체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로 표상된 미국의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본다. (이선미, 앞의 글, 439-440면 참고) 정미지는 소설 속 미국이 자기 존재를 가두는 경계성을 해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제3의 공간이라고 간주한다. (정미지, 앞의 글, 245면)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서 고향을 단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지향점이자 인간다움의 거처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의 거지>에서 현세가 미국을 고향으로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떤 파리>에서 월남민 여성 지연은 자유와 꿈, 사랑이 있는 장소인 파리를 그리워한다. 동백림사건을 소재로 한 <어떤 파리>는 1960년대 후반의 현실에서 간첩이라는 음험한 이름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에 대한 이방인으로서의 동질감을 서사화하고 있다.<sup>20)</sup>

『나는 느낄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말입니다. 파리의 한복판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예요. 류샤는 무엇을 느낄 것 같아요?』  
(중략)

『나는 홍재씨, 사랑- 사랑같은 것을 생각할 거예요.』 (중략)  
파리와 너무도 동떨어진 곳에서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사는 곳을 의식하면 파리가 우리 생의 환희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파리의 이야기를 지껄이곤 한다.<sup>21)</sup>

월남 지식인 홍재와 지연이 살아가는 남한의 현실과 동떨어진 곳 이기에 ‘환희의 상징’처럼 의식되는 파리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노스텔지어의 대상이며 지식인 여성 지연에게는 유년의 만주벌판과 같은 ‘사랑’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현실과 불화하는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파리를 그리워하며 지연은 파리를 유년의 고향과 같은 장소로 받아들이기 위해 간첩으로 낙인찍혀 돌아온 동향친구 진영에게 동질감을 느낀다.<sup>22)</sup> “내가 아직 여학생이던 시절, 무지개를 이야기하던 한자

20) 허병식은 박순녀의 <어떤 파리>가 간첩을 다루면서 주권자가 강요하는 범역에 저항하는 자기결정의 서사라는 기반 위에서 새로운 이산의 서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한다. 허병식, 『간첩의 시대-분단 디아스포라의 서사와 경계인 표상』, 『한국문학연구』 46, 2014, 32-33면

21) 박순녀, 『어떤 파리』,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292-293면

22) 연남경은 <어떤 파리>에서 자유, 언론 등 남성의 공적 영역에 대응하는 사랑 같은 여성의 사적 영역의 윤리가 드러나며 결말에서 감각의 직접성이 강조된 성애

리에 진영이가 있었다.”(259) 간첩으로 낙인찍힌 진영을 상류계급 유학생이란 거리감으로 대하는 남성 지식인 홍재와 달리 지연은 함께 낭만적 꿈을 꾸었던 유년의 친구로 동질화함으로써 그녀에게 현실은 억압적인 폭력으로 생경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다양한 박순녀의 소설에서 월남 여성 주인공들은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 대한 지향을 간직한 이방인으로서 파시즘과 가부장제 등 현실 체제와의 불화를 경험하며 매춘부나 미친 여자, 간첩 등 혐오발언으로 낙인찍힌 소외된 존재인 동시에 현실의 주변부에서 자유롭게 체제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탈주욕망을 내포한 존재로 자리하는 것이다.

### 3. ‘없는 장소’로서의 고향과 거주의 ‘다른 장소’

〈대한민국의 거지〉에서 월남민 여대생 현세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이북의 출신지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이 있다고 상상되는 미국이며 〈어떤 파리〉에서 월남민 홍재와 지연이 꿈꾸는 고향 역시 파리라는 인간다운 자유와 사랑의 장소이다. 이들 장소는 모두 실재하는 곳이기보다 환상의 낙원으로서 ‘없는 장소’(유토피아)로 집약된다.<sup>23)</sup> 이들 소설에서 월남 여성 주인공들은 이방인으로서 현실 체제에서의 소외와 저항을 드러내며 인간다움이 자리한 또 다른 장소, 즉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노스텔지어를 표출한다.<sup>24)</sup> 이처럼 박순녀 소설에

학적 국면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등 사적 언어의 가치를 복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연남경, 앞의 글, 307-313면 참고

23) 유토피아는 ‘없는 곳’과 ‘좋은 곳’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향점으로서 고향의 ‘ 좋음’보다 환상으로서 현실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없는 장소’란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24) 노스텔지어는 귀환 불가능성에 대한 어쩔 도리 없음, 하릴없음에 대한 실행민과

서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형상화되는 고향이란 <대한민국의 거지>의 미국이나 <어떤 파리>의 파리처럼 환상의 이국이거나 이미 지나가버린 유년의 이북-함흥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 '없는 장소'의 속성을 내포한다.

박순녀는 수필 <내 고향을 아십니까>에서 “내가 고향에 품는 애착은 좀 비정상이라 할 만한 데가 있다.”<sup>25)</sup>고 고백하는데, 그 비정상적인 애착이란 고향을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추억하는 것과 관련된다. 박순녀의 회상 속 그리움으로 윤색된 고향은 지나가버린 과거, 환상적인 낙원의 '없는 장소'로 그려진다. “털게가 산같이 쌓여 있고 고등어는 미쳐 퍼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다를 짝 메운” “산은 아름답고 물은 맑으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246)는 유토피아로서 고향은 윤색된 것이기에 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죽자고 고향 사랑을 하”(246)려 드는 것으로조차 느껴지는, “그러니까 실제의 고향이라기보다 마음속에 재현되는 영적 존재인지도 모른다.”(250) 박순녀는 여러 수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고향인 함흥, 성천강과 만세교, 낙민루와 어릴 적 고향 사람들을 아름답게 떠올리며 <로렐라이의 기억>, <만세교>, <포옹일기>, <낙민루>, <검비아내의 소녀>와 <유섬언니> 등의 소설을 통해 지나간 유년의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을 서사화하고 있다.

언제나 언제나 보는 꿈- 그렇지. 언제나 언제나 아닌지만 나는 가끔 꾸는 꿈이 있다. 그것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의 꿈은 대개가 만세교에서

---

이방인의 허망한 반응일 수 있다. 귀환하고자 하는 고향이란 실향민 혹은 이방인이 '잠시 거하는 곳'으로 규정된 어떤 장소와 대비되어 그에게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런 곳'이다. 김광기, 앞의 책, 396-398면

25) 박순녀, 『내 고향을 아십니까』, 『영혼과 사랑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화사, 2016, 245면



시작이 된다. (중략) 그때부터 나는 불안해진다. 왜 그렇게 불안해지는가 하면 만세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내 꿈이 늘 완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6)</sup>

〈만세교〉는 월남 여성 수인의 귀향의 꿈, 공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유년의 고향으로 회귀하는 불안한 꿈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만세교를 건너 성천강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자신이 거하는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체제와의 불화를 내포한 것인 동시에 과거로의 회귀라는 불가능한 욕망이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속에서 다리를 건너는 것은 위태롭기만 하다. “나는 물에 잠겨 있는 다리를 위태롭게 넘어가고 있다.”(208) 위태로운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고향으로의 불가능한 회귀를 꿈꾸며 그 가운데 유년의 아름답고 그리운 순간들과 조우한다. 만세교와 낙민루의 역사와 기억, 유년과 10대까지의 집과 어머니, 첫사랑 이영덕이 자전거를 타며 만세교를 앞질러가던 기억, 꿈을 나누었던 친구 승자, 자신을 괴롭히던 남자아이들의 장난과 억지로 시집간 후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자주 가출해 “우리집에 오면 늘 앉는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241)던 하기천 언니의 기억<sup>27)</sup> 등. 그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없는 장소이자 시간’이지만, 동향인을 만나 함께 고향의 거리와 친구들의 기억과 사진을 공유하는 순간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다른 장소’이기도 하다. “이 주먹을 펴보면 뭐가 있는지나 알아? 함흥의 우리들의 거리가 있다구!”(308) 유년의 고향,

26) 박순녀, 『만세교』, 『기쁜 우리 젊은 날』, 지혜네, 1998, 207-208면

27) 박순녀의 수필 〈살아보고 싶었던 여인〉은 〈만세교〉속 하기천 언니의 모델인 사촌언니 ‘정희언니’에 대한 추억을 다루고 있다. “글을 쓸려고 상(想)을 다듬다가 또는 무슨 생각을 골몰히 하다가 나는 문득 정희언니와 마주칠 때가 있다. 그러면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여준 일이 없는 언니가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꼼짝도 않던 모습이 홀연히 떠오른다.”(박순녀, 『살아보고 싶었던 여인』, 『영혼과 사랑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화사, 2016, 146면)

만세교와 성천강과 낙민루의 지명과 그곳을 채운 소년, 소녀들의 기억, 어머니와 친지들의 이야기는 금지되고 사라져버린 (환상적인) '없는 장소'이지만 언제라도 동향인과의 만남 가운데 되살아나며 현실과 '다른 장소'를 만들어낸다.

미셸 푸코는 정원이나 묘지, 식민지나 군대, 사창가와 휴양촌, 축제와 기숙사, 박물관과 극장 등 현실을 지우고 중화 또는 정화하는, 현재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다른 정상공간(현실공간)들에 반박하고 이의제기하는 일종의 대항공간을 헤테로토피아(다른 장소)라고 명명한다. 이는 현실에서 위치를 갖는 유토피아로서, 유토피아(없는 장소)가 실제 장소를 갖지 않는 배치이기에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적인 장소이면서도 일종의 대항배치이자 현실화된 유토피아적 장소이다.<sup>28)</sup> 이러한 현실 속 '다른 장소'는 현실을 뒤엎히게 하고 반박하며 현실의 체제나 규율을 전복, 와해할 수 있는 문제적인 배치를 이룬다.<sup>29)</sup>

박순녀의 소설에서 자유와 사랑이 존재하는 이국이나 유년의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의 이면에는 현실체제에 소외된 이방인으로서 월남 이후 경험한 남한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개인적인 안락과 처세를 강조하는 남한 지식인 남성

28)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이한 공간들로서 다른 장소들이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에는 특권화된, 신성한 금지의 장소들에 해당하는 위기의 헤테로토피아(기숙학교나 군대), 일탈된 개인들이 들어가는 일탈의 헤테로토피아(감옥과 요양소), 현실 속 환상공간을 만들어내는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매음굴), 현실을 완벽하게 정돈하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식민지) 등이 있다.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48-57면 참고

29) 유토피아가 실제하는 장소를 갖지 못한다 해도 고르고 경이로운 공간에서 펼쳐지며 살기 좋은 정원과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준다면 헤테로토피아는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헤테로토피아가 언어를 은밀히 전복하고 이름 붙이기를 방해하고 보통명사를 뒤엎히게 하고 문법적 가능성을 와해하고 신화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11-12면

주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진한다. 남한의 자본가 가정에서 자라난 남성 주체인 이들은 현실에서 소외를 경험하지 않기에 자본주의나 가부장제를 당연시하는 속물이자 ‘진부한 청년’<sup>30)</sup>으로 자기만의 안주를 위해 미국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잘못 온 청년>과 <임금의 귀>, <귀향연습> 등에서 이들 남한출신 약혼자 또는 남편은 전쟁이 나면 먼저 북한으로 향하는 선봉에서겠다는 월남민의 생명을 건 지향성, 즉 귀향에의 욕망을 비롯하며 “일단 남쪽으로 내뺐다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380)겠다는 도피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낸다.

<임금의 귀>에서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침묵해온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자기를 느”<sup>31)</sup>끼는 월남 지식인 여성작가 명화는 “도피라는 말도 이스케이프라는 영어로 말하면 단순하게 인텔리답다고 생각하”(53)며 미국으로의 도피를 주장하는 남편 원철과 대립한다. 마찬가지로 <귀향연습>은 미국으로의 도피를 꿈꾸는 남한출신 남성과 이북으로의 귀향을 꿈꾸는 월남민 여성의 대립구도를 통해 월남민 여성의 귀향 욕망이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도피가 아닌 인간다움에 대한 지향 행위로서 현실주체에 대한 비판을 내포함을 보여준다. 또한 <귀향연습>은 미국으로의 이기적인 도피를 욕망하는 남한 주체의 현실이 월남 여성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방인으로서의 소외된 자기 인식 가운데 동일한 지향성을 공유하는 동향인과의 만남을 배치함으로써 ‘다른 장소’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9.28 수복 후 파괴된 서울 거리에서 “‘함남(咸南) 귀향민 사무소’ 그 기관”<sup>32)</sup>을 발견한 월남 여대생 윤세는 그곳에서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저

30) 박순녀, 『잘못 온 청년』,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360면

31) 박순녀, 『임금의 귀』, 위의 책, 45면

32) 박순녀, 『귀향연습』, (『현대문학』, 1976.11), 『박순녀 작품집』, 지만지, 2010, 209면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리를 꼭 차지하고 있는”(211) 동향인들과 조우하는데, 이때 파괴된 고향(없는 장소)으로의 귀향 욕망을 공유하는 귀향민 사무소는 안전을 위해 도피하는 주체의 욕망과 다른, 인간다움의 지향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실과 구분되는 대향공간이다.

“어딤니까.”

“함흥이에요.”

나는 내 생전, 이때의 대화에서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가 일체히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만이 의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다시는 없다. 청년과 나 사이엔 아무런 거래, 아무런 의무, 권리의 관계가 없었다.(211)

(혈연이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 타인이기에 아무런 거래나 의무, 권리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향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귀향민 사무소의 청년과 완전한 공감을 이룬다. 거래나 의무, 권리와 무관한 동향인 간 귀향욕망의 공유가 보여주는 위안의 반대편에 약혼자 준석과 같은 남한 권력 주체의 현실이 자리하며, 귀향이 아닌 도피를 욕망하는 현실 주체는 그녀에게 차라리 “내 편의 사람이 아니고 나를 전쟁에 처넣는 적같이 위화감이 생”(242)기는 존재일 뿐이다. 그녀가 찾는 ‘다른 장소’로서 함남 귀향민 사무소란 파괴되고 부서졌기에 사라진 ‘없는 장소’로서 집과 고향에 대한 기억과 회귀, 재건에의 지향과 결부된다. 귀향 욕망과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동향인과의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함남 귀향민 사무소’와 같은 ‘다른 공간’의 배치를 통해 소설은 (부정적인) 현실체제와 구분되는 대향 공간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귀향연습〉의 ‘함남 귀향민 사무소’와 같이 현실에서 이방인으로

소외된 존재로서의 동질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공유하는 동향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다른 장소’는 <잘못 온 청년>에서 현실에서 고립된 채 윤희된 월남민 여성의 집으로 나타난다. <잘못 온 청년>에서 월남민 여성이 현실에서 스스로를 윤희시키는 집은 남한 지식인 남성 주체의 저열함에 대한 환멸을 자기 형벌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고 비판하는 공간인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동향인 청년들과 끝없이 나누는 ‘다른 장소’로 그려진다.

그때 그 사람의 귀에는 현세의 소음은 모조리 없어지고 아득히 들려오는 먼 곳의 나를 부르는 소리를 확실히 귀담을 수가 있다. (중략) 창가에 무거운 포장을 드리우고 방문마다에 견고한 자물쇠를 잠근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가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sup>33)</sup>

<잘못 온 청년>에서 월남 지식인 여성 주인공은 현실 체제에 순응하는 남한 지식인 남성 주체의 진부함에 분노하며 ‘자신을 완전히 가둬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현실 체제에 저항하면서 ‘먼 곳의 나를 부르는 소리’, 즉 이방인으로서 인간다움이 존재하는 장소-고향을 꿈꾼다. 이러한 자기 윤희의 공간, 즉 이방인으로서 현실 체제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공간은 함흥학생사건의 참가자로 “시베리아로 유형당할 뻔했던 이북 청년 셋이 내 앞에 나타”(365)남으로써<sup>34)</sup>, 돌아갈 수 없기에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환기하고 이방인으로서 소외된 현실 속에서 위로가 이루어지는 ‘다른 장소’로 나아간다.

33) 박순녀, 『잘못 온 청년』,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364면

34) <잘못 온 청년>은 신의주학생사건과 그 여파로 일어난 함흥학생사건을 소재로 씌어진 소설이라는 점에서 선우희의 <노다지>, 염상섭의 <그 초기> 등과 함께 언급된다. 이에 대해서는 안서현, 『월남의 뿌리, 반공-학생의 기원 : 신의주 학생사건의 재현방식 연구』, 『상허학보』 55, 2019 참고

내 고향에선 내가 성공적인 결혼을 한 것으로 소문이 동네를 휩쓸고 있었던 것이다. 이북의 어느 소도시의 자만적이던 처녀가 단신(單身) 이남으로 넘어가서 젊음의 탐구 과정인 현대사조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과 결혼하여 이상적으로 살고 있다.(366)

진보적 표면 아래 속물적 이면을 숨긴 남편에 대한 분노와 자기혐오로 스스로 현실로부터 유폐된 채 지내는 집은 소련군의 추격을 피해 이남으로 탈출한 월남민 동향 청년들에게는 이상적인 보호소로 기대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보호소로서 결혼에 성공한 누이의 집은 사실상 거짓으로, 이러한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환멸이란 곧 그들이 찾아온 자유의 남한이라는 사회에 대한 환멸을 의미하며 그들은 “이남에 대한 선물처럼 도취되어 참가했던 데모의 기억은 지금 가없는 엑스트라의 짓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게 되고” “벌써 이북 피난민이 완전히 되어서 아주 굴욕적으로”(368-369) 소외된 현실에 직면한다. “이북출신은 미래와 연결되는 출발이라는 게 없”(369)다는 이방인의 소외된 위치를 자각하는 가운데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지향성으로 간직한다. 월남민으로서 그들은 “아무데나 대가리를 싸매고 끼어드는”(369)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타향(남한)의 환멸적 현실 가운데 동향인의 친밀함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나누며 현실의 낙인찍는 목소리와 부정적인 윤리가 투입하지 않는 ‘다른 장소’로서 동향인 여성의 집을 방문한다. ‘나’의 집은 이상적인 결혼에 성공한 누이의 가정이라는 주체의 공간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고향과 거주지를 잃은 이방인의 불우함이 새겨진 공간이되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귀향 욕망을 공유하는 ‘다른 장소’이다. 때문에 “내 집에 오면 으레 사조반의 다다미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리고는 분주히 방문부터 닫아버렸다.”(370) 그곳에 들어서면 그들은 ‘방문부터 닫아

버린 채 현실의 온갖 부정적 낙인으로부터 귀를 막는다. 자유가 아닌 자본의 환멸만이 가득한 남한 사회에서 미래가 없는 월남민으로 온갖 멸시를 견디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고향 누이의 집이란 닫혀진 방문처럼 의도적으로 현실에서 유폐된 공간이다. 이 유폐의 공간에서 동향인으로서 교류하기에 이 공간은 떠나온 고향,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년의 고향을 거울상처럼 반영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이 '다른 장소'는 젊은 남녀의 만남이란 점에서 현실의 질서와 윤리에 균열을 일으키는 바, 동향인으로서 그들의 교류는 남한 가부장 사회체제의 시선에서 볼 때 유부녀와 청년들 간의 간통처럼 느껴지는 까닭이다.

그들은 왜 내 집에 그리도 오고 싶었을까, 나는 그때까지도 역시 그들의 뼈적인 존재였을까. 이웃에는 흉악한 내 소문이 앵앵대는 똥파리처럼 날개치며 퍼져나갔다. 직업적인 창녀보다도 더 망측한 여자가 하늘을 외면하고 저 속에 살고 있다.(384)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장소'로서 월남민 청년들이 모이는 동향 여성의 집이란 현실 가부장제 사회의 시선에서 '직업적 창녀보다 더 망측한 여자가' 사는 일탈의 음험함을 연상시키지만, 낙인찍힌 이방인으로서 이미 상실한 유년의 고향을 공유하는 그들에게는 '없는 장소'를 잠시나마 환기시키는 '다른 장소'로서 위안의 지점이다. 이처럼 고향을 상실하고 경계를 넘어와 남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전전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박순녀 소설의 세계에서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한 환상의 이국이나 상실된 유년의 충만한 고향은 모두 '없는 장소'로서, 동향인 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통해 순간적으로 되살려지는 '다른 시공간'(헤테로토피아의 순간)과 이어진다.

박순녀의 소설에서 월남민 집단과의 교류, 동향 동창생과의 만남

등은 동향인 남성과의 사랑을 초월한 평생의 우정과 같이 현실과 다른 질서가 펼쳐지는 시공간으로서 〈장갑을 벗는 여자〉, 〈고색찬란〉, 〈남섬〉이나 〈바지가 없는 남자〉 등에서 반복적으로 서사화된다. 오직 하나 있는 재산인 집을 “북에 있는 동생들에게 넘기기로 마음을 정한 지가 오래”<sup>35)</sup>된 월남 여성 혜옥이 뉴질랜드에 갔다가, 노년의 우정을 나누던 “학교 선후배에다 같은 동네에 살”(168)던 동향인 남성 병무의 죽음을 듣고 삶과 죽음을 돌아본다는 이야기를 다루는 〈남섬〉, 대학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중년의 남녀가 가끔씩 술을 마시며 이해관계가 없는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그리는 〈바지가 없는 남자〉<sup>36)</sup> 등에서 남녀관계는 동향인, 같은 고학생의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해 호의는 갖되 애정으로 얼룩지지 않은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공간을 형성한다. 그 곳에서는 남녀가 마주 앉아 “바지를 벗어서 걸상에다 줄을 세워 잘 걸어 놓”고 “내복 바지에 와이셔츠 바람으로”<sup>37)</sup> 술을 마셔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현실 가부장제의 시선이나 윤리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동향인 남녀의 교류란 성별이나 계층별 차이를 벗어나 충만한 과거 고향의 ‘고색찬란’을 공유하는, 현실의 가치판단이나 규율에 침범당하지 않는 대항 시공간(다른 장소)을 구성한다. 〈고색찬란〉에서 “우리 동네 소꿉동무로 중신애비”<sup>38)</sup> 노릇을 하기도 했던 추

35) 박순녀, 『남섬』, 『이중섭을 찾아서-박순녀 창작소설들』, 동서문화사, 2014, 163면

36) 박순녀는 수필 〈문득 만나는 얼굴〉에서 “나보다 한 학년 위이면서 미술부장을 했던 지금의 이 아무개 감독.”(박순녀, 『문득 만나는 얼굴』, 『영혼과 사랑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화사, 186면)과 “서로 서로를 아껴야한다면서 끊어지지 않을 만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186)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가 〈바지가 없는 남자〉에서 서사화된 것으로 보인다.

37) 박순녀, 『바지가 없는 남자』, 『이중섭을 찾아서-박순녀 창작소설들』, 동서문화사, 2014, 307면

38) 박순녀, 『고색찬란』,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336면



억으로 얽힌 감학순은 우직하고 봉건적인 성격과 현재 중년가장으로서의 위치 등과 무관하게, 동향인으로서 몇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방황하는 중년여성 숙선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글세 혼자 살데지만 가령 결혼한다면 우리, 지금처럼 만나게 될까?』 (중략)

『우린 만나도 돼요.』

『왜요?』

『숙선씨와 나는 한 마을에서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런 사이니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를 한동안 말을 잃고 쳐다보았다. 억지-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구나, 그러자 내 얼굴은 뜨거워지고 눈길은 땅으로 떨어졌다.(354-355)

그들은 동향인이기에, 행복했던 유년의 고향, ‘없는 장소’를 공유하는 사이이기에 결혼여부나 직업, 재산, 가치관과 무관하게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한다. 그들의 만남은 지나간 과거 고향의 공유, 고색찬란한 ‘없는 장소’의 공유에서 가능하며, 성별이나 가치관, 계층과 같은 현재의 체제가 투입하지 않는 관계란 점에서 현실 속 ‘다른 장소’의 배치를 이룬다. 때문에 숙선은 학창시절 자신에게 애정을 고백했던 기무라의 이름을 알고자 하지 않으며 유년의 기억 그대로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학순이와 나의 이야기는 장난처럼 끝나는 것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영원히 거룩하고 고색찬란해야 하는 것이었다.”(361) 이처럼 홀로 월남해 고향으로 학업을 마치고 결혼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홀로되는 과정에서도 끝없이 고색찬란한 영원성을 간직하는 관계로서 유년의 고향, 동향인의 세계가 존재할 때, 고향에 대한 노스텔지어란 현실의 시선이나 윤리가 개입하

지 않는 다른 세계, 고색찬란한 송고함의 기억이 지속되는 ‘다른 장소’에 대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 왜 미국에 와 있으며, 자식이 몇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충 그리고 솔직하자고 마음을 먹으면서 털어놓았다.

“너도 겪을 건 다 겪었다.”

미옥이가 몇 번이나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그리고 말했다.

“내 말도 많이 들었지?”<sup>39)</sup>

이북 동향인의 교류란 고색찬란한 유년의 고향, ‘없는 장소’에 대한 공유와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소외되고 낙인찍힌 채 살아야 했던 타향-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위안을 가능케 하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멀리 있는 이유〉에서 보듯 그것은 동향인으로서 나누는 생존의 체험과, 같은 낙인의 아픔을 간직한 존재로서 서로에게 터놓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위안이 가능해지는 공간으로서 ‘다른 장소’이다.

같은 월남민 여성작가이지만 임옥인의 경우 월남 동향인 집단은 현실 속 다른 장소의 가능성으로 믿음을 주는 대상이기보다 오히려 같은 월남민 여성을 구속하고 이용하는 존재로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된다.<sup>40)</sup> 가령 해방기에 발표된 〈약속〉에서는 “내 이번 가면 당신 어머니 꼭 모셔다 드리께. 그러지두 못함 옷이라두 좀 갖다 주께.”<sup>41)</sup>

39) 박순녀, 『멀리 있는 이유』, 『이중섭을 찾아서-박순녀 창작소설들』, 동서문화사, 2014, 152면

40) 임옥인은 박순녀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월남해 가족 이산을 경험하고 여성으로서 홀로 해방기 이후 남한에서 생존해야 했던 경험을 서사화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30대에 이루어진 임옥인의 월남이 사상적 충돌과 관련된 반면 10대 후반 박순녀의 월남은 진학이라는 점, 박순녀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실향과 가족 이산의 아픔이 임옥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를 약속하며 월남 여성에게 물건을 조달받고는 자기 이득만 챙기는 약아빠진 동향인을 비판적으로 서사화한다.

나는 그를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그에게 어머니와 돈과 옷을 부탁했던 것이었다. 그의 뒤를 바라보면서 나는 또 삼팔선을 눈앞에 그려 놓고 울었다. (중략) K부인은 품만 떨고 정작 떠나는 날에 준비해 놓고 기대리시는 어머니를 버렸다는 말을 얼마 후에 들었지만,(60)

삼팔선을 넘나들며 물품 장사로 이익을 남길 뿐 동향인을 이용해 미군 물품을 빼돌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동향인의 외로움을 동정하고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등의 친절을 구사하는 동향인의 이기적인 태도에 “나는 어이가 없어 그 손을 탁 치고 싶은 증오”(61)를 느낄 뿐 그에게 동질감 같은 것을 갖지 않는다. 동향인부터가 서로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 할 뿐, 고향의 유년을 공유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하나의 유대로 묶어주지 않으며 월남 전재민으로서 그들 각각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는 주체화의 욕망을 가진 개인일 뿐이다. 이러한 임옥인에게 월남 전재민끼리 모여 사는 합숙소란 비루한 욕망과 저열한 소문이 투입하는 일상적(현실적) 공간일 따름이다. <풍선기>에서는 간신히 얻어든 전재민 합숙소에서 자신과 동료 월남 남성의 관계를 의심하는 전재민(월남민)의 뒷담화에 상처받는 장면만 그리고 있다.

지난 이른 봄 이월, 나는 이 S합숙소에 전재민의 꼴 없는 짐을 신고 비교적 오래 있을 작정으로 옮겨 왔든 것이다. (중략) 남의 머리 빛은 모양까지 시비하는 터라 나는 질색스러운 속에 나와 운을 시기하고 시비하고 혈지 못해 애쓰는 불쾌한 분

41) 임옥인, 『약속』, (『백민』 1권 6호, 1947.10/11), 구명숙 외 편,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2』, 역락, 2011, 59면

위기를 극히 자연스럽게 떠날 수가 있는 것이다.<sup>42)</sup>

박순녀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거지> 속 여대생 기숙사처럼 고독한 월남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합숙소, <귀향연습>의 ‘합남 귀향민 사무소’처럼 동향인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귀향의 꿈을 공유하는 공간과 같은 지향성은 임옥인 소설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임옥인 소설에서 동향인, 나아가 친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움직일 뿐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지도, 위안이나 공감을 주지도 않는 존재들이다. <나그네>에서 신문기자이면서 소설을 쓰는 월남 지식인 여성 은숙은 자신이 거할 수 있는 방 한 칸을 찾아 친지의 집, 동향인의 집 할 것 없이 발바닥에 피가 흐르도록 돌아다니지만 “잇속 없는 상대와는 교섭을 아니 갖는 것이 상책이라는 장사치의 심뽀”<sup>43)</sup>에 젖어 있는 그들은 그녀를 동질감을 갖는 존재로 대하기보다 잇속 없는 대상으로 배척하고만 있다. 이처럼 임옥인 소설에서 동향인이나 친지와 같은 존재들은 월남민으로서 지식인 여성에게 더 이상 동화의 대상이나 친밀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동향인과의 만남이란 현실 속 다른 장소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와 달리 박순녀에게 있어 고향을 공유한다는 것, 같은 지명을 알고 쓰는 누군가와 만나는 행위는 숨이 턱 막힐 만큼 감동적 장면을 구성하는 지점이다. 동향인을 만나 고향의 구체적인 지명을 듣고 그 지명 한마디에 가슴이 울렁거리며 한순간 숨이 멎게 고향을 환기하고 기억하게 되는 지점, 같이 추억을 이야기하고 같은 공간의 기억을 공유하는 순간이야말로 박순녀의 글쓰기에서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다른 장소, 상실된 고향(유년의 고향)을 되살리는 다른 시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42) 임옥인, 『풍선기』, (『대조』 2권 2호, 1947.4), 위의 책, 20면

43) 임옥인, 『나그네』, (『부인』 3권 5호, 1948.12), 위의 책, 86면

어머머, 내 가슴이 울렁이기 시작했다.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내 가슴을 언제나 그렇게 울렁인다. (중략)

며칠 뒤 나는 여학교 동창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너들, 사포리, 풍양리를 기억해?”

하고 물었다.

친구들이 멍했다. 내가 기자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순간 숨이 멎었던 것처럼.

다음 순간 그들 입에서 앞을 다투어 말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저기의 지명이 튀어나오고 친구들의 이름이 나온다.<sup>44)</sup>

유년의 지명으로 환기되는 고향,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숨 막히는 공감의 시공간은 충만한 기억으로 채워진다. 이러한 충만함은 유년에 실재했던 시간과 공간의 기억에서 촉발되는 (현실과는 이질적인) 감각으로, 이 순간 유년의 고향은 잠시 그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의 지명’과 ‘친구들의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현재 ‘없는 장소’인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서 고향을 거울상으로 비추는 동시에 그 상실의 현실까지도 반사하는 ‘다른 시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다. 박순녀는 이처럼 고향을 이상적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없는 장소’로 환기하는 동시에 <귀향연습>이나 <잘못 온 청년>에서 보듯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공유하는 월남 동향인 집단의 만남이라는 ‘다른 장소’의 가능성으로 서사화한다. 이방인으로서 현실체제와 불화하는 월남 동향인의 만남이란 박순녀 소설에서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 ‘없는 장소’의 기억과 지향성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의 규율이나 윤리를 넘어선 ‘다른 장소’의 일시적 충만함을 형성하는 것이다.

44) 박순녀, 『내 고향을 아십니까』, 『영혼과 사랑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화사, 2016, 248-249면

#### 4.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박순녀의 소설 속 월남 여성 주인공을 통해 파시즘과 가부장제 등 현실 체제와의 불화 가운데 낙인찍힌 이방인으로서의 소외와 자유, 탈주욕망을 분석하는 한편 고향을 환기하는 장소들이 가진 의미를 재고함으로써 박순녀 소설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였다. 고향과 타향에서 모두 다른 공간을 꿈꾸며 ‘잠재적 방랑자’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모습은 박순녀의 소설 속 작가의 체험이 투영된 여주인공의 서사를 통해 잘 드러난다. 〈아이 러브 유〉와 〈외인촌 입구〉, 〈대한민국의 거지〉와 〈어떤 파리〉는 거주 공간이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체제에 순응 정착하지 못한 채 소외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매춘부와 정신병자, 도둑과 간첩 등 주류 사회를 위협하는 더러운 대상으로 낙인찍힌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이들 소설은 모두 현실 체제와 불화하는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의 폭력 속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소외와 자유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거지〉와 〈어떤 파리〉는 태어난 장소가 아닌 귀속하고자 하는 장소로서 고향을 각각 미국과 파리라는 자유와 사랑의 환상적 낙원으로 설정하며 이러한 지향의 낙원으로서 고향은 〈만세교〉 등에서 보듯 박순녀 소설에서 유년의 고향과 상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박순녀는 이처럼 고향을 이상적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없는 장소’로 환기하는 동시에 〈귀향연습〉이나 〈잘못 온 청년〉 등에서 보듯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공유하는 월남 동향인 집단의 만남이라는 ‘다른 장소’의 가능성으로 서사화한다. 월남 동향인이 성별이나 계층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되는 시공간은 유년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지향성을 공유하고 현실에서의 소외감을 위로하는 ‘다른 장소’로서, 박순녀 소설 속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위치

하는 장소를 보여준다. 이는 사라져버린 유년의 고향, '없는 장소'의 기억과 지향성을 공유함으로써 현실의 규율이나 윤리를 넘어선 '다른 장소'의 일시적 충만함을 형성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구명숙 외 편,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2』, 역락, 2011  
 박순녀, 『어떤 파리』, 정음사, 1974  
 박순녀, 『칠법전서』, 일지사, 1976  
 박순녀, 『기쁜 우리 젊은 날-박순녀 소설집』, 지혜네, 1998  
 박순녀, 『박순녀 작품집』, 지만지, 2010  
 박순녀, 『이중섭을 찾아서-박순녀 창작소설들』, 동서문화사, 2014  
 박순녀, 『사랑과 영혼의 대화-그리워 그리워』, 동서문화사, 2016

2. 단행본

-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주)글항아리, 2014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 이해진 역, 『증오하는 입-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오월의봄, 2013  
 우에노 지즈코, 나일동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비런더 칼라, 라인더 카무르, 존 허트닉, 정영주 역,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르, 2013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 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3. 논문

-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민의 서울 정착-월남민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근」, 『典農史論』 9, 2003, 61-90면  
 김윤선, 「월남 여성 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 2010, 235-262면  
 안서현, 「월남의 뿌리, 반공-학생의 기원 : 신의주 학생사건의 재현방식 연구」,



- 『상허학보』 55, 2019, 347-380면
- 연남경, 「1960년대 문학의 미학적 정치성-질서의 세계와 불화하는 서사들」, 『현대소설연구』 71, 2018, 281-320면
- 이명희, 「반공주의와 작가정신-월남 작가 박순녀의 경우」, 『아시아여성연구』 47권 1호, 2008, 7-38면
- 이선미, 「16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9, 2006, 417-452면
- 정미지, 「박순녀 문학의 젠더 주체와 ‘불온’의 재현 논리」, 『여성문학연구』 38, 2016, 227-255면
- 정영자, 「1960년대의 한국여성소설문학사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3, 37-63면
- 정혜경, 「<사상계> 등단 신인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579-609면
- 허병식, 「간첩의 시대-분단 디아스포라의 서사와 경계인 표상」, 『한국문학연구』 4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4, 7-38면



<Abstract>

The sense of a stranger and shifting in Park,  
Sun-nyeo's novels  
—The representation of dwelling in a coming  
south woman intellect writer's novels—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eculiarity of Park, Sun-nyeo's novels from the sense of a stranger which shows an intention not here but other place. As a latent wanderer, a stranger feels alienated from the (inner) system and freely criticizes to a present society because of his location as a marginal man in both his hometown and a foreign land. The heroine in <I love you>, <The gate of foreigner's town>, <Some Paris> etc. who had leave the hometown, north of the 38<sup>th</sup> parallel for education experiences in discord with the present system like Fascism and patriarchy etc. and she feels alienated as a branded person with hate speech. But at the same time as a stranger she intends to other place in which freedom and love exists. Her intending place is a utopia in which freedom and love is realized like America in <A beggar of South Korea> or Paris in <Some Paris>. But this place dose not exist in real world so it is an object of nostalgia like a disappeared childhood hometown which is recalled beautifully in <Mansegyo>. The hometown is represented as 'a nowhere place'(utopia) which is good but not exists and it is narrated as the possibility of 'other

place'(heterotopia) in which the persons from the same province meet and share the memory and nostalgia for the disappeared childhood hometown, north of the 38<sup>th</sup> parallel in <A practice for going back to hometown> or <A young man wrong came>. This meeting of the persons coming south from the same province as strangers evokes temporally feeling contentment as 'other place'(heterotopia) in which they stand aloof from the present rule or morality with their sharing memory and intention for 'a nowhere place'(utopia), disappeared childhood hometown.

Key words: Park, Sun-nyeo, A woman intellect coming south, A stranger, Hate speech, Hometown, Nowhere place(utopia), Other place(heterotopia)

투 고 일 : 2019년 5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5월 20일-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